

## 제10회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 보고 — 기념 회의를 마치고

세이카쿠인대학 학장 시미즈 마사유키 (清水正之)  
백정환 (白正煥) 역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가 2022년 11월 11일에 무사히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멀리 일본에 있는 본교를 찾아주신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3년전 이곳 세이카쿠인대학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대학의 교류는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합니다. 이 회의는 2008년에 체결된 양 대학 학술교류인 「신학자 학술회의」 협정에 의거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격년제로 양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한다는 협정의 취지로 10회는 세이카쿠인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2년간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0회차라는 기념적인 회의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음에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저는 8년전부터 이 학술회의를 통해 여러 교수님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례로 2015년 가을 서울에서 양 대학의 교류에 얽힌 역사를 당시 총장님이셨던 김명용교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왜 일본의 세이카쿠인대학을 교류의 상대로 지목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 기독교사상문화연구원 연구부장님이셨던 윤철호 교수님으로부터는 두 대학 교원간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막역한 사이라는 말씀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툇터놓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회의가 제겐 정말로 소중한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김 전 총장님의 말씀에도 언급되었지만 학술 교류 시작과 그 후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주시던 저희 대학 명예 이사장님이셨던 오키 히데오 (大木英夫) 선생님이 2022년 10월 12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9회차 회의에 참석하셨던 전 종합연구소 소장 타카하시 요시후미 (高橋義文) 명예교수님이 지난 2021년 8월 29일에 소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의 안식과 영혼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그간의 재해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3년전 제9회차에 이어 「인간 : 아시아의 인간관과 신학적 인간론— 21세기에 있어서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통전적 수렴 (2)」이었습니다. 이 주제 아래 양 대학이 손을 맞잡고 아시아의 새로운 신학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했습니다.

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연재해, 한국의 사고재해, 세계로 눈을 돌리면 전쟁의 참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이 굴절되고 분열될 수 있는 원인들로 가득찬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완전한 신앙과 인간의 모습이 갈기갈기 찢기고 생활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듯한 공포가 만연돼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통전적 인간의 모습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때 통전적이란 의미가 새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신학적 기초에 기반하는 인간적 해결을 위해 작지만 이 신학자 학술회의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의 중심이 되는 심포지움은 2022년 11월 11일 세이카쿠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무라세 아마테오 (村瀬天出夫) 부교수의 사회와 백정환 (일본기독교단 요가교회) 목사의 동시 통역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학장인 저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시자 기독교사상연구부 부장이신 신옥수 교수님의 인사를 필두로 10회차를 맞이해 낙운해 세이카쿠인대학 종합연구소 특임교수로부터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 (2009–2019) 를 회고하며」란 주제의 서두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참석자 전원은 이 회의의 역사적 경위와 그 역사를 일구어오신 많은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의 발표자와 논평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연 : 카타야나기 에이이치 (片柳榮一, 세이카쿠인대학원 객원교수)

「모노노아와레」의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변이 (變異)

— 미시마 유키오 (三島由紀夫) 에 대한 비판적 신학적 시점

논찬 : 안윤기 (장로회신학대학교 부교수)

강연 : 김영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키타모리 카조 (北森嘉藏) 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찬 : 시마다 유키 (島田由紀)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전문대학원 부교수)

그리고 각 강연과 논평 후에는 5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다야나기 교수님의 일본인의 정신사(精神史)를 회고함과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키에르케고르, 서양철학에 걸쳐진 폭넓은 논의의 내용은 교수님의 논고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불교적 체념을 배경으로 하여 무상(無常)을 체념으로 수용한 「모노노아와레」(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에서 결정적인 문학적 표현을 획득한 ‘별망의 미학’을 자신의 몸으로 체화한 미시마 유키오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시마는 키에르케고르의 윤리적 결단과 종교적 결단을 모두 거부하고 ‘모노노아와레’의 미적 결단, 즉 데카당스를 선택하여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탐닉한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근대적 데카당스로 통하고 있으면서도 깊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타자’에 이르는, 즉 하나님으로의 초월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김영원 조교수님의 강연은 어떠한 시대를 나타내는 정서, 예를 들어 ‘슬픔이나 아픔’에 대한 분석은 그 시대 인간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뛰어난 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키타모리 카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내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키타모리 신학의 토대는 「기독교론」 「삼위일체론」이 아닌 ‘인간의 고통이 실존이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본은 고통의 실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에는 일본의 아픔이 반영돼 있으나 아시아의 고통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에 김영원 조교수님은 동조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키타모리의 헤겔 비판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두 이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키타모리 신학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

습니다. 키타모리 신학의 기초와 초점은 인간론, 즉 ‘자연과 슬픔을 느끼며 나타내는 『모노노아와레』를 강조하는 일본적 심미주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인간의 아픔을 연결하는 것은 ‘유비’와 거기에서 오는 ‘아픔의 상징화’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본적 인간이해를 토대로 한 세계의 아픔을 섬기는 가능성을 키타모리 신학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저항이나 정의에 근거한 행위가, 혹은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매개이자 유비이며,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통찰’, 즉 신정론(神正論)이야말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인간론」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픔을 섬기는 실천적 신학적 인간론이 될 수 있음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두 강연에 대한 논평자의 발표는 강연자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매우 건설적인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감을 덧붙이자면 강연과 논평, 회장에서 오간 질문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학술회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제10회차에서 비로소 ‘정(情)’과 ‘감성(感性)’을 매개로 한 양 대학의 접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학이나 예술작품등을 통해 해석학적으로, 이른바 내재적으로, 또는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상호의 내재적 인간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두 강연에 빛대자면 카타야나기교수님이 제기하신 일본적 탐미주의 혹은 감성과, 김영원 교수님의 일본적 심미주의에 대한 지적을 통해 한일 양국의 각각의 감정, 감성까지 자세히 들여다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신학, 인간학을 또 다른 하나의 보편으로 연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로서 이 학술회의가 자리매김된 듯한 느낌입니다. 키타모리 카조는 그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아픔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진리」가 아닌, 일본을 매개로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된 **Menshen-kenner**는 **Gottes-kenner** 외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Menshen-kenner** (인간을 잘 아는 자), 이 ‘인간’은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입니다. 올해 이후 이 회의의 개최 형태도 약간 변화될 예정이지만 결론적으로 10회 회의를 통해 양 대학의 교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무적 준비를 비롯해 회의의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힘써주신 낙운해 종합연구소 특임교수님과 키쿠치 미키(菊池美紀) 매니저(연구지원과)님, 그리고 가네코 유카리(金子ゆかり)님(연

구지원과)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는 2024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